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증정모임 진행

조선소년단기를 펴며 휘날리며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에서 출발하여 수도 평양에 이르는 전 로정에 올린 충성의 편지이달리기참가자들의 씩씩한 발구름소리는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어 사회주의강국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으로 역세게 자라나는 조선소년단원들의 담찬 기상을 잘 보여주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변혁과 발전으로 향한 혁명적진군길에 생신함과 약속하는 힘을 더해주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증정모임이 5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두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봉 만경대혁명학원 원장, 청년동맹일군들, 혁명학원 원아들, 각 도편지이달리기참가자들, 평양시안의 소년단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갈채속에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정중히 전달되었다.

문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자라나는 세대대들의 희망과 꿈을 아름답게 꽃피워주시며 부강번영의 찬란한 레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안기는 우리 인민들과 전체 소년단원들의 절절한 소망이고 더없는 행복이

라고 말하였다. 그는 아버지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소년단원들이 있으며 원수님의

제일 큰 기쁨은 소년단원들이 미래의 역군으로 든든히 자라나는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몸도 마음

도 역세게 단련하여 사회주의조국의 대하여 언급하였다.

학과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며 어려서부터 고상한 도덕품성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고 조국보위와 나라살림살이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충성의 편지에서 다진 결의를 빛나는 실천으로 이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끝없는 충직한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 공산주의후비대로 든든히 준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편지이달리기과정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우고 체험하였다고 하면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를 올리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끝없는 기쁨과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행복담을 누리는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라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 지역체를 겸비한 앞날의 강성조선의 유능한 인재가 될 줄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증정모임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따라 주체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소년단의 대부대가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송고한 후대사랑이 펼친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

조선소년단원!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긍지높은 부름인가.

세상을 둘러보면 부모들의 보살핌속에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전쟁과 분쟁, 질병과 기아로 목숨을 잃거나 정신육체적으로 불우자가 된 아이들,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는 아이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허나 공화국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미래사랑, 후대사랑속에 자라나는 세대대들이 송고한 정신세계를 지닌 소년혁명가로, 사회주의조선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달리기가 진행되어 조선소년단원들의 충성을 담은 편지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시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축복의 편지를 올린 70들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하루빨리 드리고싶은 열의가 대렬마다에 끓어넘치는 속에 진행된 300만 소년단원들의 편지이달리기이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나라의 방방곡곡 기나긴 로정을 달리고달린 소년단원들의 모습은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세대대들의 송고한 정신도덕적품목을 남김없이 보여준 역사의 화폭으로 아로새겨졌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주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참되게 견고하는 전

국의 학생소년들은 조선소년단장립 77돐을 맞으며 좋은 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소년》호방사포들을 마련하여 인민군대에 보내줌으로써 온 나라 인민들을 감동시키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자라나는 세대대들이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도 할수 없다.

오늘날 이 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높은 정신세계를 지니고있는가 하는것은 다음의 몇가지 사실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라레치는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는 소년단원들과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흙마대를 쌓아 학교에 모셔진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를 모위한 소년단원들, 수도의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주변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관리하고 많은 꽃관목과 백도라지를 금수산태양공전수목원에 보내주고있는 세대대들의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화폭,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2000여명의 학생소년들이 김일성소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수여받은 사실들...

하더라도 이들이 지닌 그렇듯 송고한 정신도덕적품목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 것인가.

이 땅의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 따르는것은 그 품이 자기들의 밝은 오늘과 래일을 지켜주고 빛내주는 한없이 마스롭고 위대한 삶의 품이기때문이다.

지금도 항일대전의 나날

창취와 압박이 없는 인민의 세상인 유격근거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귀가에 쟁쟁히 울려여온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아름다와질것이다.

이런 송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어머니수령님께서 세세대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친어버이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시키고 소년단원들이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해주셨으며 아동단원들을 제정어려운 시기와 전후복구건설의 첫삽을 박을 때에도 학교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먼저 세우도록 해주셨다.

바로 이런 마스로운 손길아래 아동단원들은 소년혁명가들로 역세게 자랐다. 그가운데는 원수들의 갖은 회유와 위협, 살점이 떨어지는 잔악한 교묘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으며 사형장에서 회생되는 마지막순간에 《일제놈들을 타도하라!》, 《조선혁명 만세!》를 높이 불러 적로 강화발진시키기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셨다.

천리마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주체53(1964)년 4월 소년단원들의 대회를 소집해주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있어 전례없는 기적이 창조되던 1970년대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1980년대에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의 6월에도 소년단원들의 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셨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소년단원들을 위해 베풀어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그

만 그는 9살에 후대들의 추억속에 영성할 위훈의 창조지가 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해방후 항일아동단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공화국의 소년운동발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발전에서 새세대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친어버이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시키고 소년단원들이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해주셨으며 아동단원들을 제정어려운 시기와 전후복구건설의 첫삽을 박을 때에도 학교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먼저 세우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불변의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후대관은 공화국의 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나라현정이 어렵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후대들을 위해서는 아까운것 없이 돌려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사랑이 있었기에 온 나라 소년군들의 불빛이 더 밝게 빛났고 경치 좋은 명승지마다에 자리잡은 소년단야영소들에서는 야영기들이 펄펄 휘날렸으며 학생소년들은 시련의 시기에도 언제나 밝게 웃으며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었다.

《김금순은 9살을 살고 영생을 얻은 소년였다. 9살이면 콩다리염필처럼 짙직한 생애이다. 그러나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인생이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높이에 도달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래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세상에는 100살을 살 때까지 민중약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대로 이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소년단사업을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선소년단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으며 소년단원들이 혁명의 후비대로 자라나도록 해주셨다.

모든것을 후대들을 위하여!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불변의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후대관은 공화국의 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나라현정이 어렵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후대들을 위해서는 아까운것 없이 돌려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사랑이 있었기에 온 나라 소년군들의 불빛이 더 밝게 빛났고 경치 좋은 명승지마다에 자리잡은 소년단야영소들에서는 야영기들이 펄펄 휘날렸으며 학생소년들은 시련의 시기에도 언제나 밝게 웃으며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었다.

《당에서는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을 위하여 전례없이 강력한 로고침을 부여해주었습니다. 평양에 온 소년단대표들의 건강상태를 료해하던 과정에 의료원들은 정일심소녀에게서 본인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체없이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의사들의 구체적

세상에는 혁명적인 구호를 내리고 긍지높은 력사를 새겨온 소년조직들이 적지 않았지만 오늘날까지도 자기의 붉은 피줄기를 이어오면서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빛내어나가는 소년조직은 오직 조선소년단 밖에 없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들로 키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 화폭들이 새겨졌던가.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남긴 또 하나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여기에 다시 적는다. 이름은 정일심, 나이는 14살, 재령군 금장고급중학교 학생...

《당에서는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을 위하여 전례없이 강력한 로고침을 부여해주었습니다. 평양에 온 소년단대표들의 건강상태를 료해하던 과정에 의료원들은 정일심소녀에게서 본인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체없이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의사들의 구체적

인 진단결과 소녀의 병은 하루이틀의 치료로는 해결할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어 일심이는 두달동안이나 수도의 이릉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그 나날에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상상조차 못했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회의준비로 일분일초를 쪼개며 밤을 새우시던 때에 정일심학생과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할 소년단 대표들에 대한 대책을 취해주시었던것이다.

소년단원들을 위해 베푸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가 어찌 이뿐이겠는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할하려는 적대세력의 발악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나날에도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게시며 대회에 몸소 참석하여 《소년단대표들무대!》, 《사랑하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무대!》이라고 사랑담아, 정답아 불러주시며 력사적인 연설도 하여

주신 경애하는 그이이다. 지난해 말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를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서한도 보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조국번영의 새로운 한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찬란한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혁명의 훌륭한 교대자인 300만 소년단원들이 있기에 주체위업의 전도와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다고 말씀하실 때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그 얼마나 끝없는 격정으로 열매였다.

정정 우리 당이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앞에, 인민우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고, 더 담차고 더 활기있게 자라야 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자루의 품이 들어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영광으로 된다고,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철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위해, 소년단원들을 위해 대대같은 사랑을 언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시하여 이 나라의 아이들, 300만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참된 아들딸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명망하고 대바르게,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여 주체조선의 무적막강한 힘은 보다 백배해지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사회주의 무릉도원을 꽃피우시며

지금 공화국에서는 수도와 지방, 농촌을 비롯하여 어디에서나 거창한 대건설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 수도에 크고 특색있는 화성거리가 일떠서고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강동은실농장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으며 지방과 농촌의 곳곳마다에서 황홀한 문화주택들이 련속 솟아나고 화려한 새집들이소식이 날마다 전해져 온 나라를 명절처럼 흥성있게 하고있다.

대건설전투들이 도처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수도와 지방이 달마다, 해마다 더욱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변모되고있는것은 주제건설이 도달한 발전의 높이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조건을 보장하여 주는 수단이다. 사람은 좋은 살림집이 있어야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으며 건강이 있어야 기계를 만들고 철도, 항공기, 우주선, 선박, 영화관, 공연장, 유원지가 있어야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이처럼 건축이 인간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으므로 사람들은 예로부터 건축물을 인간생활을 위한 3대 필수적요소인 하나로 규정하고 그 창조와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었다.

오늘날 공화국의 건축은 천체적인 예지와 웅대한 리상, 폭넓은 식견과 무한대한 열정을 지니신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나라의 건축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서한 《당의 주제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일어나 가지》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해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하고 안장되고 보전위생적이며 문화정서적인 환경과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었다.

또한 건축설계에서 류사성과 반복을 피하고 건축물들을 대상별특성과 용도, 수용능력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특색있게 건설할데 대한 문제, 지방건축설계를 해당 지방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다양하고 독특하게 하며 특색건축으로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추세에 맞게 건설대상들을 생태환경을 좋게 하고 주변환경과 친숙하게 하는 원칙에서 설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건축을 세계적수준에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나라의 건축술을 발전시키

는것이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민대계의 예속사업이기에 친히 평양건축대학을 찾으시어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시겠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나라의 건축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에서 제일 중시하시는 문제가 바로 건축물마다에 인민대중 제일주의리념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것이다.

이것께서는 주제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고 하시면서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에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활짝 꽃피워주시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으며 인민을 최고명령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는 웅대한 리상이 비껴진

몇해전 8월 어느날 앙락은 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훌륭히

전변된 현대적인 온천문화휴양지의 웅장한 자태를 이룩도록 떠메기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번엔 스키장과 온천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를 개척하였다고,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한 일군이 이제 우리 인민들이 여기에 와보면 누구나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하셨다.

그러자 경애하는 이이께서는 이곳에 꾸러지는 휴양지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철저히 구현된 창조물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이 지구의 건축물들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의 요구가 반영된것이라고 하시면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건설하는것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을 위해서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가이드 시공자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건설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이 말씀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그저 해줄수 있는만큼이 아니라 가장 좋은것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여 인민에게 안겨주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주제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융계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평가

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리라고 바치신 헌신과 로고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다.

휴먼지 날리는 건설현장을 찾으시어는 몸소 그림까지 그려가며 부족점을 바로잡아주시고 준공을 앞둔 어느날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찾으시어는 국제적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우리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 색깔까지 친히 정해주시었다. 어느 공방건설장을 찾으시어는 보전맛이 나게 건설하도록 설계의 수정방향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최상의것을 안겨주시려고 건설물을 하나 일떠세울 때마다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지난 4월에 성대한 준공식을 펼친 화성거리만 보더라도 살림집배치계획과 조감도, 형성안 등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인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평면배치, 구획배치를 잘하고 건축형식도 새롭게 하도록 가르쳐주시었다.

건설시공의 비중을 높여 도시미화에서 현대적인 맛을 더 잘 살릴데 대한 문제, 국제성을 반영한 표어를 설치하여 거리의 정지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모든 금양, 상일, 편의

봉사시설들을 살림집구획안에 꾸러주고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연결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시신 형성안만 해도 무려 1 630여건에 달한다.

조형성, 예술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세계적수준의 건설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기념비적건축물을 안겨주시리 휴먼지 날리고 찬바람 부는 건설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하나의 미흡한 점도 있을세라 구석구석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서 이 땅우에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는것이다.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앙락은천문화휴양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평양양로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보통강변의 호화주택구, 송화거리, 화성거리, 산간도시의 표준 삼지연시,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노래하며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는 농촌문화주택마을들, 중형은실농장, 련포은실농장, 류경안과 종합병원, 유류아동병원, 보

건산소공장, 평양가방공장, 미, 스키장이라면 눈과 신선

미, 물놀이장이라면 물과 현대미라는 종자를 쥐고 두루마기에 구두를 신은것과 같은 불일치를 극복하면서 개개의 건축물들의 내외부형성에 종자가 일관하게 관통되도록 하여 개개의 건축물들이 자기의 특색과 고유한 미를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건축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것처럼 극난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행복의 별천지, 문명의 새거리, 새 마을, 현대적인 온실농장과 문화휴식터들을 마련해주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칭송과 고마움의 격정들을 토로하며 이 고마운 제도를 토내어갈 드논은 열의에 넘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웅장한 기념비적건축물로부터 아기자기한 아동공원에 이르기까지, 초고층살림집으로부터 과학연구기, 문화후생시설, 산업건물에 이르기까지 내용과 형식, 주제와 양상 등 모든 면에서 새시대의 표준을 끊임없이 창조해가시는 건설의 영재, 창조의 거장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되어가고있다.

원수님께서는 모든 세부들이 재미나고 아담하고 깔끔하게 형성된 유류아동병원, 과학자, 교육자들이 사는 거리를 알수 있게 하는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초고층살림집에 형성된 독특한 상점물, 첨단과학의 세계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는 전민학습의 대진당임을 한눈에 알수 있게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특색있게 형성된 과학기술전당의 새로운 건축형식, 주제성과 민족성이 살아나는 평양국제비행장의 항공역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건축물의 성격과 사명을 직관적으로 가능할수 있게 한다.

승마장이라면 말과 자연미, 스키장이라면 눈과 신선

전 광 현



이 땅에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결정체들이다.

지난 4월에 준공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에도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화성거리를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인민의 리상거리로 일떠세우시기 위해 몸소 지도해주신 형성안만 해도 1 630여건이나 된다.

인민에 대한 열화의 정과 사랑이 어려있는 이 수자를 놓고 사람들은 지난해에 일떠선 송화거리가 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도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셔야 하는 속에서도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인민들에게 50년, 100년후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새 거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이이께서 지새우신 밤은 정녕 그 날이었다.

그 일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해주신 송화거리의 형성안은 1 200여건에 달한다.

화성거리와 송화거리가 전하는 1 630여건의 형성안과 1 200여건의 형성안!

여기에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불같은 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응축되어있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령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헌신의 세계는 비단 화성거리와 송화거리형성안에만 깃들여 있는것이 아니다.

로동당시대 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가장 훌륭하게, 완벽하게 일떠세우시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해주신 양덕온천문화휴양지형성안은 무려 2 000여건에 달하며 삼지연시를 산간도시의 전형,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지도해주신 형성안은 무려 8 800여건에 달한다.

또한 인민들이 《물의 궁전》이라고 정답게 부르는 문수물놀이장에 가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13건의 형성안을 지도해주신 이 이야기 가슴을 친다.

이 땅에 련이어 일떠서는 창조물들 하나하나에는 이렇듯 인민을 끝없이, 가장 열렬히 사랑하시는 절세위인의 로고와 헌신의 세계가 어려 있다.

허영준

◎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쳐시는 나날에 ◎

위대한 스승의 20분간 강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11월 어느날 평양건축종합대학(당시)을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자신께서 명예총장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 미술실기실에 들어서시였을 때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한창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인물속사하는 데 몇몇 걸리는가고 하시었다. 한 학생이 5분간이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한 10분정도 기다리시라 여기 온 일군들을 선택해서 인물속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며 동행한 한 일군을 몸소 선정해주시었다.

아직 마숙한 학생들의 그림속세를 보아주시리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던 대학의 일군들은 그이께 학생들의 건축형성설계작품집을 드리었다.

미흡한 점이 많은 건축형성설계작품집을 한장한장 유심히 보아주시면서 잘 그렸다고 과분한 치하를 해주시고 건축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그러자면 공간묘상능력과 형태, 비례, 색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어떤 색으로 마감하는가 하는 데 따라 건축물이 완전히 달라져보인다고 하시며 어느한 건설 대상의 실례까지 들어 설명하시

는 그이의 말씀을 새기며 교원들은 이렇듯 짧은 시간동안에 건축학의 원리로부터 그 구조와 기초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처럼 일군을 몸소 선정해주시었다.

아직 마숙한 학생들의 그림속세를 보아주시리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곳으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이이께서는 아직 채 완성되지 못한 세 학생의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서 우정과 결합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었다.

주체106(2017)년 3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이 훌륭히 개건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 나오시었다.

이날 건재본분들을 보시면서 건설부에서는 마감전제를 국산화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적업으로 틀어쥐고 건설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는것이, 특히 마감전제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가 개발한 마감전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축물들을 마음대로 건설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이날에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준비된 강

의안도 없는 강의였으나 단 20분

간에 학생들을 매혹시키고 교원

들을 경탄시킨 위대한 스승의 강의였다.

이날에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준비된 강의였으나 단 20분

간에 학생들을 매혹시키고 교원들을 경탄시킨 위대한 스승의 강의였다.

이날에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준비된 강의였으나 단 20분

간에 학생들을 매혹시키고 교원들을 경탄시킨 위대한 스승의 강의였다.

이날에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준비된 강의였으나 단 20분

간에 학생들을 매혹시키고 교원들을 경탄시킨 위대한 스승의 강의였다.

《휘황한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는 조선》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세상사람들이 매혹시키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솟아오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공화국에 펼쳐진 건설의 대변영기

를 휘황한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고있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라오스건축전선 중앙위원회대표단 단장의 인상담)

《조선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아름다운 사회주의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펼치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열매를 맺고있다.》(말레이시아 《평명일보》에 실린 글)

《조선은 최근 몇해안에 창건거리, 온화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많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더욱이 놀라운것은 방대한 자금이 드는 그 크고 현대적인 집들이 국가부담으로 건설되어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사회주의본태가 약동하는 인민의 나라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영국선군정치연구회위원장의 인상담)

《조선의 경이적인 발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나날이 변모되고있는 평양은 영웅적조선인민의 창조적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보여주고있다. 특히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봉사시설, 문화조화를 이룬 려명거리의 그 규모와 형식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듯 거창한 전변을 이룩하는데는 짧은 기간에 이룩하였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조선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비약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스웨디

의 공산당대표단 단장의 인상담)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성과들에 대하여서도 세계인들은 한결같이 공화국에서는 대규모건설사업들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진행되고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조선에 펼쳐지고있는 휘황한 전변은 건축의 영재이신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비범한 안목과 놀라운 지도력, 건설정치가 안아온 기적적인 성과이라고 격찬하고있다.

본사기자

참다운 변화가는 어디에 있는가

사회주의변화가!
이제 공화국의 인민들만이 아닌 세인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황홀한 조선의 새 거리들을 두고 더치는 감탄사이다.
창전거리에 이어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와 경류동, 화성거리, 평양의 모습을 이채롭게 변모시키는 이런 호화거리들과 함께 삼지연과 려포, 검덕을 비롯한 산간지대와 벌방농촌들에도 사회주의문명을 상징하는 최첨단 새집들이 즐비하다. 그 새집들의 문패에 적힌 수많은 이름들을 보라.



상하수도관리공과 무계도 전차운전사, 화력발전소로동자와 방직공, 농장원 등 자본주의세계갈오면 사회의 최하층으로, 빈곤층으로 버림받고 배척받을 근로자들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이 나라의 가장 평범하고 소박하며 수수한 근로대중이 변화의 당당한 주인으로 사는 나라.
돌이켜보면 근로하는 사람들과 변화와 호화라는 말은 어울릴수 없는 너무도 상반되는 개념으로 굳어져왔고 이 행성의 일반적인 상례로 되어있다.
미국판 농고보야도 일명 《서있는 도시》라고 하는 뉴욕의 변화가 맨하탄에는 마천루들이 빼곡이 서있다. 남조선의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다는 강남구에는 초호화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도 손가락을 미쳐 다 잡지 못할 정도로 호화층과 변화가 들어 있다.
자본주의문명과 발전상의 속도라고 하는 이런 도시와 거리들에 인민의 모습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러나 시야에 안겨드는 그들의 모습은 변화와 호화층의 어마어마하고 으르렁 위상에 질투를, 그 《우아함》과 《활활함》이 가려온 조라한 막바지거리에서 비애를 삼키는 처량한 모습들이다.
맨하탄에는 가난하고 어지럽고 비좁은 곳으로 소문난 《할렘구역》(빈민촌)이 있는데 그곳의 주인들은 흑인들, 실업자들, 의지가지랄해

없이 벌어먹고 사는 아이들이다.
서울의 강남구도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지만 《천국》에는 《죽방촌》, 《달동네》로 불리우는 서민들의 지옥이 있다.
판자차 비닐, 지함으로 어설피게 지은 집 아닌 《집》들에 문패가 있을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물무지와 다름없는 곳에 문패란 가당하기나 하며 설사 문패가 있다면 무엇을 써넣는단 말인가.
언제 바람에 날려 없어지고 눈비에 물러앉을지 모를 집을 집이라 불려 주소를 써넣으며 개, 돼지보다 못한 인성이 어디 사라담나에 있어 인명을 써넣겠는가.
또 제 집이란 평생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그런 사회에서는 집문패에 이름을 써넣는다는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고 기껏 이름을 써넣었다자 그것은 집세를 물어야 할 패족일뿐이다.
근소수의 특권층들의 이름이 새겨진 자본주의변화가의 나라와 근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사회주의변화가의 문제.
이 대조적인 문패는 공화국의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희열이 어떤것인지 다 말해주는 뚜렷한 징표이다.
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이 다 그러하지만 제일 훌륭하고 최첨단 새집도 당연히 그 주인은 인민이 되고있다.
그야말로 인민이란 이 부름은 모든 부와 문명, 락과 복을 다 누릴수 있고 가질수 있는 특권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이 특권의 이름을 세상 이 보란듯이 문패에 새긴력사는 과연 언제 시작되었는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해방후 토지개혁령이 발표된지 며칠이 지난 후 대동군 시족면 성문리(당시)를 찾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을에서 20년동안 지주집머슴살이를 한 농민을 친히 만나주시고 마을에서 제일 부유하게 살아온 그에게 동리

에서 제일 큰집을 안겨주시었다.
그리고 친히 《박장반》이라고 문패를 써서 그의 집 대문기둥에 높이 달아주시었다.
풍우에 다 썩은 버짙이영을 무겁게 이고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살아야만 했던 인민.
집의 주인,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해방조선에 인민이라는 이름을 긍지있게 새긴 력사가 그날에 시작되었다.
《박장반》—그 이름은 짓밟혀 찢어발린 머슴의 이름이 더는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신 인민의 이름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의 문패의 력사는 장구한 세월이 땅속에 행방의 문패, 기쁨의 문패의 력사로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주제90(2001)년 7월 어느날 황해북도 서흥군의 범안리를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과일나무밭을 배경으로 아담하면서도 멋들어지게 새로 지은 한옥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면서 별세상에 온것같다고, 범안 땅에 소리높이 자랑할수 있는 훌륭한 농촌마을이 일떠서니 무릉도원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옛날에는 집집마다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놓고 《배나무집》이요, 《감나무집》이요 하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집주변에 과일나무도 많이 심고 집집마다 문패도 써붙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사회주의선경마을에 사는 궁지와 자부를 보란듯이 문패에 최 새기고 무릉도원을 가꾸가는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이의 깊은 뜻과 축복이 이 교시에 뜨겁게 어려여었다.
옛날에는 돈있고 권세있는 부자집대문가에만 빼것이 나 붙어있던 문패가 근로하는 인민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나붙는 문패.
오늘날 년년이 사회주의변

화가로 일떠선 새 거리들과 농촌진흥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마을들의 새 살림집들에는 이런 문패가 헤일수 없이 나붙어있다.
송화와 화성은 물론이고 자본주의사회의 거부들도 입을 벌리고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구슬다라락과 눈부시게 변모된 농촌살림집들에는 인민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붙어있다.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변화가의 문패란 억만장자들이나 권력을 틀어쥔 정객들을 상징하는 명함장파도 같은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에서 변화가의 문패는 근로하는 인민이 누리는 만복의 중서와도 같은것이다.
존재만인 사랑을 받는 그 행복으로 눈물이 절로 흐르고 근로하는 생으로 사는 보람과 희열이 가슴을 채워주는 기쁨과 웃음의 문패.
이 문패는 공화국의 위상과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솟아오른 새 거리, 새 살림집들과 더불어 늘어난 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제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

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지금 화성지구와 서포지구, 온 나라 농촌들에서 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단지 몸을 담고 사는 집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경관과 부려움을 한껏 자아내게 하는 멋쟁이집들이다.
그야말로 사회주의변화가의 전성기, 부흥기가 펼쳐지고있다.
예로부터 뛰니뛰니해도 집이 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말 그대로 인민의 재부가 늘고 인민의 복리가 커지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언론은 빈부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세계 10대 순위에 드는 10명의 부자가 31억명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있으며 국민층은 33시까만 100만명씩 늘어나고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입이 닳도록 온 세계에 대고 자본주의가 떠드는 《발전》과 《문명》의 실상이다.
하지만 공화국을 보라. 시간마다, 날마다 늘어나는것은 인민의 재부이다. 인민의 보금자리가 늘어나고 인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주는 창조물들



서울의 광범구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낮추어주신 전차료금

주제36(1947)년 12월 어느날,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건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집무실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국일꾼들이 전차들이 다 낡아서 고장이 자주 생기는데다가 일제때부터 가지고 있던 전차부속품들도 거의 다 떨어져서 제대로 가동하고있지 못한 조건에서 전차운임을 낮추기 곤란하다고 제기하는 바람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전차사업소(당시) 일꾼들을 부르시고 전차운임을 낮추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시었다.
잠시후 사업소일꾼이 일어나 전

에서 곤란이 많지만 동무들이 열성을 다해서 전차부속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때 수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원만히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10전에서 5전으로 낮추어진 전차운임.
일꾼들은 거기에 끄든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차사업소의 일꾼들에게 동무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시면서 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전차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것인가를 연구하고 모르는것은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었다.
토의문제가 원만히 결속되어 회의는 끝났으나 인민을 위하여 새로운 구상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본시기자

김원경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주체음악연구소 실장 후보원사이며 교수, 박사인 박형섭선생은 재능있는 민족음악가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교육자로서, 민족음악가로서 성공적인 인도로 돌출해 나올수 있게 되였는가 하는 물음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는 분명 불운이었다고.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첫시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나는 해방전 천태군의 민봉자 집에서 8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암흑의 그 세월 지리천태반던 가정이다보니 가문에는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는 음악선동으로 마을에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학생은 눈물을 머금으며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찾아오는 민요 《아리랑》의 곡조를 붙여 주신 새 삶의 빛깔은 그에게 노래를 다시 안겨주었다.
나라의 은덕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아리랑》의 구슬픈 곡조에 자기들의 불운한 인생을 실어보며

슬퍼 울곤 하였다. 처량하게 울려가는 단소소리와 함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웨치는 울부짖음도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날 왜놈들이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단소를 빼앗아 더러운 계다짜꼬로 마구 짓밟생겼을 걸어올수 있게 되였는가 하는 물음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는 분명 불운이었다고.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첫시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나는 해방전 천태군의 민봉자 집에서 8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암흑의 그 세월 지리천태반던 가정이다보니 가문에는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는 음악선동으로 마을에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학생은 눈물을 머금으며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찾아오는 민요 《아리랑》의 곡조를 붙여 주신 새 삶의 빛깔은 그에게 노래를 다시 안겨주었다.
나라의 은덕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아리랑》의 구슬픈 곡조에 자기들의 불운한 인생을 실어보며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위력을 떨치며

로동영웅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로동영웅운동은 로동자들속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형태의 생산돌격운동을 조직하고 일반화한 대중운동으로 해방후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애국적인 증산경쟁운동형태였다.
주제35(1946)년 2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공장, 광산, 농촌에서 로동영웅운동을 광범히 조직하여 로동자, 농민들이 새 조국건설을 위한 혁명적인 경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할데 대하여 밝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이 이 운동에 대한 조직사업을 강화케 전

개하도록 하시었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35(1946)년 4월 홍남비료공장(당시)을 찾으신어 홍남의 로동계급이 새 조국건설에서 모두가 로동영웅이 되라고 고무격려하시었다. 뒤에 이어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로동자, 농민들을 로동영웅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로동영웅운동은 삼시에 온 나라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 확대되어 갔다. 이 운동의 불길속에 1946년 말에 이르러서는 황해제철소(당시)를 비롯한 822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어 조업하였고 알곡은

행복의 《아리랑》을 곡조에 담아

고사하고 망국노의 아들로, 길가의 막들로 한생을 피눈물속에 살아야 했을것입니다.》라고 박형섭선생은 눈물을 머금으며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찾아오는 민요 《아리랑》의 곡조를 붙여 주신 새 삶의 빛깔은 그에게 노래를 다시 안겨주었다.
나라의 은덕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아리랑》의 구슬픈 곡조에 자기들의 불운한 인생을 실어보며

을 다 바쳐온 지난 수십년세월 그는 도서 《조선민족악기》를 집필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도 밑에 기록된 민족악기들의 개량완성성과를 고증하여 후세에 남기고 3명의 박사학위를 비롯한 수십명의 석사들을 양성하였으며 여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민족음악의 우수성을 빛내였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그가 오른 성공으로의 계단들에는 평범한 민족음악가를 위해 줄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둘러줄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손길이 뜨겁게 어려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한 민족음악가가 이룩한 공적을 높이 내세워주시고 80번째 생일을 맞을 때에는 사랑의 생일상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그때 나는 내가 받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 값높은 삶을 민요 《아리랑》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단소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민요 《아리랑》을 연주했다.
조선민요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곡의 구성진 소리가 방안에 울려나왔다. 나라였던 그 세월에 그가 연주한 《아리랑》의 곡조에 슬픔과 한탄이 실려있었다면 오늘에 연주하는 단소소리에는 더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실려있었다.
《우리 조국은 찬란한 태양의 빛깔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밝은 해빛이 가득한 사회주의조국에서 나의 인생이 빛나듯처럼 우리 후대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후미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새세대 민족음악가 후비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지혜와 열정



그는 민족음악가후비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온갖 열정을 다 바치었다.
교단에 선지 불과 몇해사이에 그가 키워낸 두명의 제자가 아버지수령님께 단소 독주를 보여드려 기쁨을 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민족음악가후비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새세대 민족음악가 후비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지혜와 열정

본시기자 홍흥식

민족의 단합과 변명을 위한 길에서

태양의 품에 안겨 (3)

오늘도 메아리치는 6.10 만세시위투쟁의 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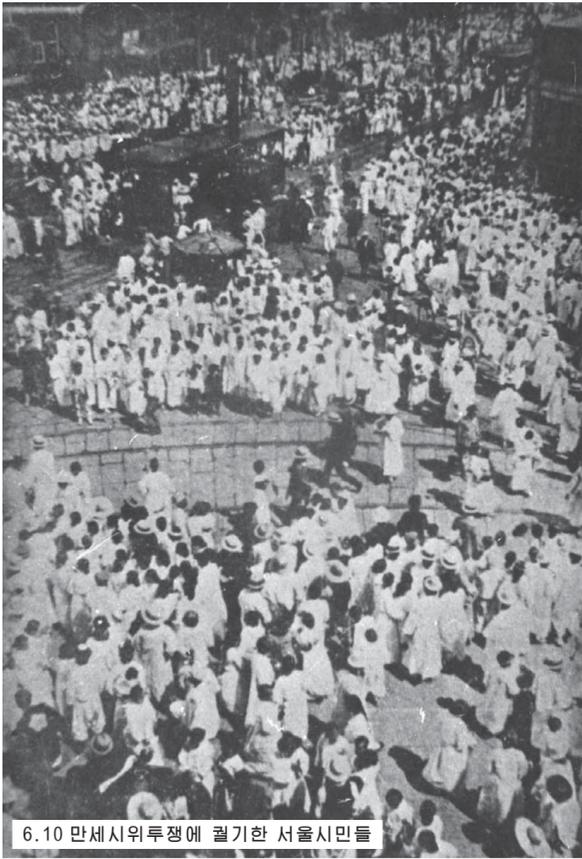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97년이 되었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이 1920년대에 벌인 가장 큰 반일투쟁의 하나이다. 1919년 거족적인 3.1인민봉

기 이후 우리 민족의 거세찬 반일기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총칼의 위협만으로는 조선인민

의 반일기세를 억누를수 없다가는것을 알고 1919년 8월에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꾼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문화통치》의 간판뒤에서 수많은 파쇼악마들을 새로 조작해내고 경찰과 감옥을 대폭 늘였으며 국내의 도처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6.10 만세시위투쟁에 참가한 서울시민들

다한것을 알고 1919년 8월에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꾼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문화통치》의 간판뒤에서 수많은 파쇼악마들을 새로 조작해내고 경찰과 감옥을 대폭 늘였으며 국내의 도처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 민족의 분노와 반일독립기운은 더욱 고조되었고 그것은 마침내 1926년 6월 10일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으로 폭발하였다.

시위군중들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세를 올렸다.

이날 서울에서 시작되어 사시에 인천,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으로 확대된 반일시위투쟁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군중은 일제군경들의 탄압에 굴복없이 맞서싸웠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었으며 조선민족의 불같은 애국심과 자주독립의지의 힘있는 과시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78년이 되어온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죄악은 오늘날도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조선강점기간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여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았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첩천지인 후,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부원을 탈탈해가다 못해 나중에는 낫그릇과 낫손가락마저 다 빼앗아가고 조선의 말과 글, 심지어 성과 이름

까지 없애려고 발악한 간악 무도한 날강도들이 바로 섬나라것들이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천주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르고도 오늘날까지 그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으며 도리어 세인의 치를 떨게 하는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면서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등에 퍼논이 되어 광분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하는가 하면 《조선의 발전에도움을 주었다》고 고아대저지른 반인륜적죄악을 덮어버리기 위해 역사기록책등에 미처날뉘고있다.

또한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음을 수시로 벌여놓으며 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고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밑에 전쟁무기확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독도를 저들의 《고유령토》라 우겨대면서 조선에 대한 재침의 칼을 베풀고있다.

얼마전에는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의 간판밑에 피로 얼룩진 《육유기》를 팔리면서 일본해상 《자위대》 팔선을 부산항에 들이밀었으며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인 핵오염수방류책등에 매달리고있다.

정녕 섬나라족속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반드시 결산하여야 할 천년속적이다. 본사기자 김영범

피력하였다. 이어 동포대축전이 진행되었다. 동포대축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각별한 배려로 조국에서 보내온 조국인민들의 동포애에 넘친 축하인사들과 만경대학생소년군전에예술소조원들의 축하공연을 수북한 특화전필물이 상영되었다.

대축전장은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시며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행사를 더욱 빛내어주시려 대해같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차고넘쳤다.

동포대축전에서는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의 각종 공연과 력대 교장 및 교우회 회장,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있는 졸업생들이 소개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본사기자

안신호녀성에 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믿음과 기대는 한 종교인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그의 한생을 끝까지 책임져주시려는 숭고한 의리에 기초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날로 더욱 깊어지는 믿음을 웃기였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적중앙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새 조선건설에 이바지해온 안신호녀성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내세우도록 높은 정치적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안신호녀성은 북과 남의 각지에서 선발되여온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한자리에 앉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는 력사적인 사건의 자랑스러운 체험자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신 그 회의에서 안신호녀성이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으며 회의휴식시간에는 그를 만나주시고 나이많은 어머니가 대의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되겠다고 은정깊은 교시를 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는 물론 국가적인 행사들과 명절날의 휴식기회가 있을 때면 안신호녀성을 자주 만나주시고 어머니에게는 제강이 필요없다고, 어머니가 보고 느낀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고 하시면서 거듭되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한번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되는 연회에 참가하여 오랜 신앙생활의 습관에 따라 눈을 감고있을적이 있었다. 열자리에 앉았던 한 일군이 《식사를 할 생각은 안하고 즐기는 왜 좁니까. 해방도 되었는데 이젠 그만 졸지요.》라고 톱말을 하여 좌중을 웃기였다.

여러 일군들과 같이 웃음을 지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심중을 헤아려주시며 우리 나라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까라고 하시어 무안해하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신호녀성을 여러 외국순신들과의 담화에 참가시켜주시였으며 그들과 동행하는 사업도 맡아하게 하시어 그가 생의 말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업에 의의있는 기여를 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도 안신호녀성을 잊지 않았고 그에게 자동차를 보내시어 안전한 지대에 대피하여 생활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그의 자식들도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던 주체41(1952)년 5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어 안신호녀성이 오늘까지 우리를 믿고 따라왔으며 일을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으로 신문에 글도 내고 방송에도 출연시키시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안신호녀성은 어려운 전쟁환경속에서도 날로 더욱 두터워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힘과 정열을 다 바치였다.

비록 몸은 년로하였지만 자신과 가족의 생을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정다할 결심만은 확고하였던 그는 1964년 2월에 8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민족자주위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민족의 어머니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한생을 빛내인 안신호녀성을 잊지 않고 계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1986년에 예술영화 《위대한 품》의 창작을 지도하시면서 그를 잘형상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영화가 완성된 후 이 영화를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그를 이끌어주시던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안신호, 그 어머니가 내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수십년전에 걸린 신미리에국렬사릉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서 인생을 값있게 마무리한 수많은 애국인사들의 유해가 정히 안치되어있다. 바로 이 성스러운 곳에 안신호녀성도 안치되어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미리에국렬사릉이 건설되었을 때 공동묘지에 있던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으로 옮기게 하시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진정 안신호녀성의 한생은 우리 온 겨레가 안겨야 할 위대하고 한없이 넓은 뜻을 이어 절세위인들을 모신 공화국임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박철남

총련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모임과 오사까동포대축전 진행

총련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모임과 오사까동포대축전이 얼마전 오사까조선문화회관과 학교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송근학부부의장 겸 교육국장, 부영욱 총련 오사까본부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총련 외곽야만현본부와 나라현본부 위원장들, 총련일군들,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사업실행위원회의 성원들, 졸업생들, 교직원들, 학생들, 동포들,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추악되었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었다.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개학의 종을 울린 학교의 70년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안고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 애국1세대들과 그 뜻을 이은 2세, 3세대동포들의 애국헌신의 력사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철저히 관철하여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의 교육

사업을 명실공히 제일조선인운동의 미배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 학교앞에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일동포들이 제일 많이는 강기지방의 민족교육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견인자적 역할을 하며 모든 졸업생들이 높은 애국심과 교육열의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고원형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사업실행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김채현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이 70돐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가 걸어진 70년은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햇빛아래 조국의 튼성번영과 제일조선인운동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애국애족의 로정,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후대들을 키우려는 동포들의 숭고한 사랑과 투쟁, 승리의 로정이였다고 격찬하였다.

《오사까중고 100년 향해》라는 구호드높이 오사까민족교육의 최고기관으로서의 긍지를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서한에서 가르치신대로 학생들이 다니고싶어하고 보호자들이 보내고싶어하는 매력있는 학교로 꾸려나감으로써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갈 결의를 그는

에 감행된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당시 미군사교문단장이었던 로버트는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촬영한 사진을 주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인도주의적경지에서 본다면 이런것은 한가지라고 할는지 모르나... 당선들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마음속에 안고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면서 대량학살, 집단학살, 주민의 강제추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특히 산간주변의 《부락은 전부 불질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미국과 그 주구들의 극악한 식민지파쇼폭압통치로 하여 남조선은 살륙과 공포의 암흑천지로 화하게 되었다. 로광혁

피로 얼룩진 식민지파쇼통치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는 교활할뿐 아니라 악독하고 야수적인 성격과 띠고 실시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짓밟고 총칼로 괴뢰정권을 조작한 미국은 련이어 파쇼폭압통치체제를 세우는 길로 나갔다.

미국과 그 주구들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완전히 비법화되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유린당하였다.

1949년 9~10월사이에만 132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파쇼적강권에 의하여 강제해산되었다.

특히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괴뢰정권 조작 직후 《조선통신》이 강제해산되고 뒤이어 《국민신문》, 《제일신문》, 《조선중앙일보》, 《세계일

보》, 《국제신문》, 《화성매일신문》 등이 강제해산되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짓누르고 탄압할 목적으로 1948년 12월에 약령은 《보안법》이 조작되었고 1949년 10월에는 《계엄법》이 조작되었다.

이러한 악법들에 의해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짓밟히고 민족적자립을 가진 정치적력들이 가혹하게 탄압당하였다.

자료를 의하면 《보안법》에 의하여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1만 8 621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 투옥되었다고 한다.

미국과 그 주구들의 야만적인 폭압소동은 려수군인폭동을 계기로 극도에 달하였다. 려수군인폭동에 참가하였던 군인들과 인민들이 미국의 직접적지휘하

에 감행된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당시 미군사교문단장이었던 로버트는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촬영한 사진을 주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인도주의적경지에서 본다면 이런것은 한가지라고 할는지 모르나... 당선들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마음속에 안고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면서 대량학살, 집단학살, 주민의 강제추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특히 산간주변의 《부락은 전부 불질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미국과 그 주구들의 극악한 식민지파쇼폭압통치로 하여 남조선은 살륙과 공포의 암흑천지로 화하게 되었다. 로광혁

수십년에 달하는 장갑차에 짓이겨져 창자가 튀어나오고 피가 방자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하였던지 당시 남조선인민들은 《하늘망도 눈을 감고 호곡한다.》

두 녀중학생살해사건과 미제야수들

남조선에서 나어난 두 녀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무참히 깔려죽은 사건이 있는 때로부터 21년이 되어온다. 알려진것처럼 2002년 6월 13일 남조선강점 미2사단 공병대소속 병장 위커 마크를 비롯한 미군살인마들은 경기도에서 동무의 생일을 축하해주려 가던 심미선, 신효순 두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심미선, 신효순은 14살소녀들로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많고 가슴속에 아름다운 꿈을 간직했던 꽃망울이였다. 이런 그들을 미군이 백주에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였다.

수십년에 달하는 장갑차에 짓이겨져 창자가 튀어나오고 피가 방자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하였던지 당시 남조선인민들은 《하늘망도 눈을 감고 호곡한다.》

고 전하였다. 이처럼 치명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미국은 《운전법이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행하였다.》느니, 《어쩔수 없는 사고였다.》느니 하면서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미국의 이 괴뢰치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일떠섰다. 이리하여 남조선이 반미의 초콜바다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온갖 야수적인 만행들을 거러낌없이 감행하여왔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목포형렬차침단간사건, 화순판광로동자집단학살사건, 로근리대학사건, 부평소년전승기캐팸사건, 동두천녀인행렬차사건, 파주나무군사살사건, 고령제철로사건, 동두천부서열차사건, 울금이사살해사건, 서울충기란동사건 등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두 녀중학생살해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군의 범죄행위는 그칠줄 모르고 계속 벌어졌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이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고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를 터치고있었는가. 미국의 남조선강점사야말로 인류역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범죄의 력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매국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대당은 그 무슨 《떠를 나는 동맹》이니, 《가치동맹》이니 하며 피로 얼룩진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력사를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러나 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업살정책수행의 돌격대가 되어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최근에는 미국

상전과 《핵협의그루뵤》설립과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확대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범죄적인 《위성훈련》이라는것을 채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광분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점과 지배가 계속되고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통째로 팔아먹는 윤석열역도이 같은 한 남조선인민들이 제난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친미친일사대굴종행위를 일삼고있는 특등매국노인 윤석열역적대당을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기자 박철남



본사기자 박철남

정세악화의 주범, 평화의 파괴자

올해 정초부터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도둑 및 연합군사훈련들을 뻔뻔하게 벌려놓고있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들이 위협계선을 넘어서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5월 25일부터 남조선군부것들은 미국상전과 함께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합판》의 명목밑에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끌어들이며 가운뎃 진행해오고있으며 30일부러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주도하에 《합동도서방어종합훈련》이란것을 벌려놓았다.

의 무분별한 북침전쟁광들의 집중적발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그 칠새없이 벌어지고있는 전쟁불장난들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이미전에 짜놓은 북침전쟁계획들에 따라 각이한 방식으로 발발되고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강행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역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남조선미국특해공군동맹무력이 《최신무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응징》한다는 북침전쟁각본에 따른것으로서 철저히 북침전쟁수법,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방식을 숙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합동도서방어종합훈련》이라는것도 특해공군무력을 총동원하여 벌리는 종합훈련으로서 그 누구의

《도발》을 《격퇴, 분쇄》한다는 구실밑에 세운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호전광들은 5일부터 미국 열매스커에서 진행되는 다국적연합공중훈련인 《레드 플래그》(《붉은 기발》)에도 참가하여 대결광기를 부리었다. 이것은 가혹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전장을 극도로 가열시키는 위험한만한 불장난이며 제 소굴에서 대결광기를 부리다 못해 미국에까지 건너가 상전의 전쟁머슴군노릇을 하는 부나비들의 자멸적당망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는 누구이며 전쟁의 불구름이 어디서 밀려오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최춘성

뿐만아니라 5월 31일에는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의 미명하에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노린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이라는것을 강행하였다.

대결과 전쟁열에 들뜬자들

이러다가 전쟁난다! 한미화력 격멸 훈련 중단하라!



《평화적인 초분문화제를 방해하지 말라고 서로 팔짱을 끼고 분향소를 지키고 문화제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순식간에 피성이 터지고 울음이 쏟아졌다. 《모조리 체포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찰이 쳐들어왔다.》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반로동정책을 반대하여 분신사살한 로동자의 분향소를 강제철거시킨 역적패당의 파썸적 폭거를 폭로한 어느한 남조선 로동자의 성토이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은 생존권을 위해 열거하여나선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을 떠들고있다. 이에 편승하여 《국민의 힘》것들은 행정부것들과 그 무슨 《당정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 《법률을 개정하여 불법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여당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로동단체들에 대한 야

로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에 펼쳐나선 로동자들을 다치게 함으로써 위협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있는 것이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파썸적 폭거는 생존의 권리와 민주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파썸적 만행

민적인 탄압만행을 저구 부추기고있다. 보수언론들도 《공공장소 무단점거, 쓰레기투기》, 《불법시위에 따른 주민불편극도》 등으로 악의에 차서 떠들며 로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회적거부감과 불만을 야기시키려 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파썸경찰은

주의를 말살하고 진보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하기에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단체들과 각계층은 역적패당이 경찰을 《인간사냥군》으로 만들고 《살인폭력면허》까지 쥐여주었다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얼마전 《민주로총》은 긴

말 말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윤석열부터 하루에 11씩 마시라고 해! 안전성을 립중하겠다는 오염수를 마실 윤석열의 입술에 건배!》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를 목

인비호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여 전라북도 군산의 한 어민이 터뜨린 분노의 목소리) —《우리 바다가 화장실물에 비유하며 방사능의 위험성을 감추려는 대국민기만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라는자가 후쿠시마오염수가 문제되지 않는다며 하면서 《화장실물》을 마신다고 죽지는 않지만 마시지는 않는다.》고 뇌까리는데 대해 한 야당의 대변인이 야유조소하며 한 말)

구시마오염수를 화장실물에 비유하며 방사능의 위험성을 감추려는 대국민기만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라는자가 후쿠시마오염수가 문제되지 않는다며 하면서 《화장실물》을 마신다고 죽지는 않지만 마시지는 않는다.》고 뇌까리는데 대해 한 야당의 대변인이 야유조소하며 한 말)

에 우리 민족을 비롯한 인류에 저지른 만고죄악우에 새로운 대피약을 덧씌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수, 인류공동의 숙적이란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섬나라것들의 핵

남조선핵오염수시찰단의 일 본행각결과발표와 역적패당의 간판밑에 섬나라것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내외의 비난을 녹갓히고 핵오염수방류놀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범죄적기도

본의 핵오염수방류를 찬성하는 《박수부대》, 《핵오염수방류를 응원하라간 응원단》이다. 이번 시찰로 핵오염수방류가 현실화되었다. 핵오염수가 깨끗하다면 《대통령실》부터 핵오염수를 주문하여 마셔보아야 한다. 《정

고조되는 민심의 불안과 저주

오염수방류책동을 목인비호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핵오염수시찰단과견줄음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얼마전 일본을 행각하고 남조선에 돌아온 시찰단것들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시찰기간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받았다. 핵오염수방류의 안전성평가에서 전진이 있었다는데 대해 밝혔다고 한다.

의 산물이다. 이것은 섬나라것들의 환경파괴범죄에 대한 공모이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생태환경을 엄중히 파괴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범죄이다. 섬나라것들에게 굶겨먹이면서 천년숙적이 하는것이 라면 던져놓고 추종하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드는 《일본과의 협력》의 진면모이며 대외의교의 추악한 정체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와 수산

부》와 여당이 합동음식단을 만들어 후쿠시마산수산물을 먹고 안전성을 립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와 수산



인권불모지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청춘, 그것은 꿈과 희망이고 열정과 활력이다. 그러나 절망과 타락, 허탈과 불안속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남조선의 청년들이다. 그들속에서 류회되는 말이 있다. 《남조선사람이 된것이 싫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마련을 위해 손글에서 피가 나도록 과외로돈을 하여 돈을 모아 공부할 해도 대학 졸업장은 곧 실업증서로 되고 있다. 대학졸업생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실업난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품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결과 전쟁책동의 수치스러운 대포발, 제물로 되고있는것도 남조선청년들이다. 이처럼 불의와 악으로 가득찬 남조선사회인것으로 하여 청년들속에서는 련애, 결혼, 해산, 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을 포기하는 《7포세대》가 생겨나다 못해 자기의 모든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까지 생겨나고 《남조선이 싫어서》라는 소설이 가장 인기를 끄는가 하면 남조선들 《망한민국》, 《개한민국》, 《불지옥》으로 개탄하면서 해외로 떠나는 기피현상 등이 보편화되고있다.

등의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밖에 없다. 남조선에서는 각종 범죄와 사기합작조직에 망라된 불량자들중 청년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꿈과 희망을 잃고 절망속에 몸부림치다가 자살의 길을 택하는 청년들도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짧은 이 말속에 남조선청년들의 비참한 처지가 그대로 어려있다. 날로 더해만지는 경제적빈곤과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불평등, 개인주의와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풍조, 범람하는 범죄와 음흉하는 전쟁위협 등 온갖 사회악이 도사리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청년들의 생활환경이다.

정희후에 갇기로 하고 받은 대출금을 대학졸업후 몇년이 지나도록 못지 못해 거액의 빚을 걸머지고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지고있는 청년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뿐이 아니다. 정의와 진리,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한다고 하여 파썸폭압의 희생물이 되고 대

앞날에 대한 이상과 포부를 잃고 삶자체를 포기한 남조선청년들이 같길은 비판과 절망속에 잠겨 몸부림치든가 아니면 살인과 강탈, 폭력

청년들이 절망과 타락속에 해마다 세상을 등지는 남조선의 현실은 오늘이 암담하고 미래도 없는 인간생지옥의 한산한 풍경이다. 본사기자 박진홍

《윤석열이 재난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 남조선지역에서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초분집회와 시위 전개 —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김응서화상》과 《농민생활도》

우리는 18세기의 제능있는 화가 리팔룡이 그린 《김응서화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림은 무관례복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았있는 입진조국전쟁시기의 애국명장 김응서를 그린 것이었다. 그림에는 치켜올라간 두눈과 정기도는 눈, 꼭 다문 입을 뚜렷이 부각시켜 담차고 용맹하며 지혜있는 무관의 성격적특질을 잘 표현되어 있었다. 김응서화상의 말에 의하면

그림은 흔치 않은 애국명장의 초상화유물로서 일정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있을뿐 아니라 조선화의 선명하고 간결한 화법적특질을 잘 살려내고있는 것으로 하여 귀중한 회화유적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다음은 화가의 명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생활세태를 흥미진진하게 엮은 병풍형식의 《농민생활도》를 보도해 드립니다. 그리면서 김응서화상은 병풍식그림이 있는 곳으로 우리

를 안내했다. 8폭으로 구성된 《농민생활도》에서는 봄의 발길로부터 가을의 마당질에 이르기까지 년중 농민들의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당시 사회적급관계와 농촌의 세태풍속을 폭넓게 보여주고있었다. 봄을 맞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모습과 무더운 여름철에 땀흘리며 김을 매는 농민들의 모습이 실감있게 그려져 있었다. 아이들과 녀성들의 뽕마기와 누에치기, 물레질, 베짜기

등의 생활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었다. 또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 그것으로 음식을 차리는 농민들과 일년 내내 땀흘려 가꾼 곡식을 걷어들이 마당질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부지런히 일하는 농민들과 량반들의 한가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펼쳐보이고 있었다. 행인들로 흥성이는 장마당의 풍경도 인상적이었다. 물건을 팔거나 사는 사람, 장을 보러 가는 사람, 돌아오



8 폭으로 구성된 《농민생활도》

는 사람 등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마당의 분위기는 자못 흥겨웠다. 흰목을 뿜으며 사람들 끄는 장사꾼들의 청높은 싸구려소리가 들리는듯하고 이것저것 고르며 물품을 사는 농민들이 실지 살아움직이는 듯하였다. 《당시 어디서나 볼수 있었던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과 세태풍속을 아름다운 채색으로 섬세하게 형상한 《농민생활도》는 오랜 과정을 거쳐 여러 화가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면서 보존되고 완성되었습니니다.》 언제나 그려졌듯이 그림에 비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은 성실하고 근면하였다. 본시기자 리철민



황영일은 흥원군의 어느한 시골에서 3대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다. 청운의 뜻을 품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 어거지거 떠돌다가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두를 팔기도 하면서 흥행단을 따라다녔다. 그후 서울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외세가 살판치는 남조선땅에서 진정한 민족예술활동을 할수 없었던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과 함께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군예술극장(당시) 배우로 입대하였다가 전선사령부 화성공작대에서

활동하였으며 이후로는 국립연극단 배우,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당시) 배우로 있으면서 여러편의 연극과 많은 영화들에서 주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특히 부영적인물형상에서 그의 연기술은 남달랐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것은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서 이등박문의 역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한 나라, 한 민족을 눈심 한오리 까막하지 않고 통째로 삼키려고 발광한 이등박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그리고 강도적인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

해 지혜와 정열을 아끼지 않았다. 날아든 총알에 맞은 순간 독사처럼 몸을 웅크리고 한쪽눈만 지리감은채 꼬꾸라지는 이등박문, 조선을 먹으려던 야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역을함, 죽는 순간까지 침략자의 야수성을 버리지 못하는 표정연기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그에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배우의 칭호도 안겨주시고 늙지 말고 계속 좋은 형상을 창조하라고 고무도 해주셨으며 은정어린 생일상도 보내 주시었다. 본시기자

조선의 국조를 형상한 우표 발행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조선의 국조인 까치를 형상한 우표(개별우표 4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들에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속에서 길조로 불리며 친숙해진 까치가 훌륭히 전변된 삼지연시와 송화거리, 경주동의 살림집들과 우리식 농촌문명의 새 모습과 한테

어울려 이채롭게 형상되어 있다. 또한 우표들에는 《조선의 국조 까치》라는 글발도 부각되어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들은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공화국인민들의 애국열의를 더해 주게 될것이다. 본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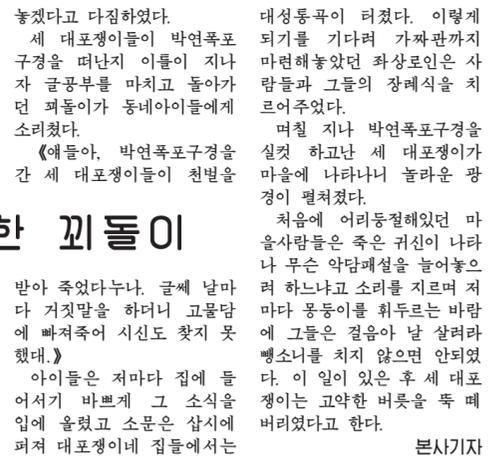
조선우표 12(2023) 10, 조선우표 12(2023) 10

새로운 연극작품창작으로 들끓는다

공화국의 국립연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이 새 연극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나라의 관목있는 예술단체인 국립연극단에서는 지난 시기 좋은 연극작품들을 창작창조하여 인민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올해에도 새로운 연극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 창작의 낮과 밤을 보

내고있다. 연극단의 일꾼들은 예술위원회를 통하여 작품창작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우는 한편 격심없는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창조성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 있다. 연극단에서는 대본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한데 기초하여 배우들의 장면별연기 훈련을 능숙하게 지도하고 있다. 작품의 종자를 살리는 데 모든 요소를 집중시키는 한편 형상작업을 구체적으로

잘하고있다. 주대연을 맡은 성원들도 연인물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진지하게 하면서 연기 및 대사형상에 열정을 바쳐가고 있다. 창작창조집단의 힘찬 투쟁속에 연극작품창작사업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시기자



본시기자

선물하는 꽃의 의미

꽃은 그 종류와 색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해야 한다. 붉은장미는 진실한 사랑을, 분홍장미는 영원한 사랑과 친절성을 상징한다. 붉은카네이션은 사랑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분홍카네이션은 건강과 축복을 상징한다. 국화는 열정과 사랑을, 애기국화는 순결성과 결백성을, 들국화는 진실한 사랑과 행복을 의미한다. 나리는 사랑과 우정, 존경을 의미하며 어머니들과 친우들에게 선물할수 있는 리상적인 꽃으로 알려져있다. 본시기자



민요애설 《평북령변가》

《평북령변가》는 서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민요 《평북령변가》는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약산동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연봉홍빛달레로 뒤덮인 약산동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비롯하여 제일봉, 천주사 등 명승고적들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두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이강유적인 음조와 경쾌하고 유연한 민요골

림새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밝고 흥취나는 서정을 담아 호르고있다. 선율은 또한 후렴부분에서 조점을 길게 설정하고 형상의 폭을 넓게 하여중으로세가수가 기교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하여준다. 민요 《평북령변가》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특색있는 선율형상으로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려지고있다. 본시기자

판가에는 이에 격분한 사람들의 고소장이 비발치듯하였으며 세 대표쟁이는 판가에 끌려가 되게 곤장을 맞았다. 그러자 세 대표쟁이는 매를 맞은 양감음으로 이번에는 자기들을 고소한 사람들을 결

놓겠다고 다짐하였다. 세 대표쟁이들이 박연폭포구경을 떠난지 이틀이 지나자 글공부만 마치고 돌아간 아이들이 동네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아들아, 박연폭포구경을 간 세 대표쟁이들이 천벌을

대성통곡이 터졌다. 이렇게 되기를 기다려 가짜판까지 마련해놓았던 좌상료인은 사람들과 그의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며칠 지나 박연폭포구경을 실컷 하던 세 대표쟁이가 마을에 나타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처음에 어디를걸었던 마

단편소설

관청 (4)

글 김석문, 그림 채대성

《과거 일본이 유로인에게 끼친 정신육체적피해는 실로 엄청합니다. 유강산로인뿐 아니라 강제연행되어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수많은 동포들이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를 안고 지금껏 버티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유로인을 비롯한 강제연행피해자들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당한 모든 정신육체적피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주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을 향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웨쳐온 수많은 강제연행피해자들에게 역대 《정부》가 한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박정희 《정부》는 3억US\$를 연어쓰겠다고 대일청구권전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로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결코 짝지지 않았습니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 무슨 《경제진흥자, 위안부문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니 하고 떠들면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2천만이었던 우리나라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랍치,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전쟁관과 공사관들로 끌여갔고 짐승처럼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예술품들을 향해 언제 한번 《정부》는 소리높이 꾸짖은적이 없었으며 하나같이 비굴하고 굴욕적이기만 하였습니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가요? 지난 2018년 사회의 여론과 거세한 압력에 못이겨 일본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친일구걸에 환장한 윤석열 《정

부》는 일본전범기업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전액을 기꺼이 대신 물어주었으니 제발 관계선을 허락해달라야 손이야 발이야 비는 추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되자바람부터 곰세리처럼 허리를 구부린채 부두부두 일 본대사를 찾아가 《리넨편향적주장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미세세대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거러걸 없이 제창해서사다 못해 나중에는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징용문제를 일본과의 《안보, 경제, 무역협력》 등과 맞바꾸어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그랜드매켄》 《일팔라결안》이라는것까지 늘어놓아 어른의 못매질을 당했던것이 현 《대통령》이요보면 그것이 뭐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주 리완용을 뺀 어넘은 투동태국노》라는 걸잡지 못한 범법까지 받았을가요. 아마 현 《대통령》의 머리속에는 일본이 최정고도 발

행하는 뻔뻔스런 전범국이 아니라 《보편적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요 《협력동반자》라는 열박진생각만이 딱 들어찬 모양입니다. 이런 《정부》가 누구의 립장에서 누구의 리익을 대변하여 누구를 짓밟을것인지는 볼이 모든 명백한것입니다. 이 땅 그 어디에나 이 동맹이를 좀 보십시오. 모진 발길에 걸려채우고서도, 비바람 부는 길가에 나딩굴면서도 하소연 한마디 못한채, 가슴속에 원한을 품어안은채 응크리고있는 이 차가운 동맹이는 마치도 《정부》에도 외면당하고 《법》에도 램대당하며 막달같은 인생을 살아온 유로인의 모습대로입니다. 피맹린 한도 풀지 못하고 이제는 백발로 늙어가는 피해자들의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바로 유로인이 쳐들었던 그 동맹이속에는 조그마한 위로조차 받지 못한채 구천에서 헤매는 원혼들의 울부짖음소리가 간직되어있으며 친일에 환장이 되어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격을 마구 짓밟고 막달처럼 차던진 윤석열 《정부》를 질타하는 분노의 함성이 들어있습니니다. 그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분노로 치를 떠는 무고한 이 땅의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려

주어 더는 민중앞에 수치스럽고 죄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유로인은 비형장으로 갔던것입니다. 이런 그가 무슨 죄인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유강스럽게도 아흔살 난 병약한 로인이 힘겹게 쳐들어올렀던 그 동맹이가 《외무부》 장관의 면상에 던져지기라도 한것처럼 현실을 과장확대하여 엄청난 범죄로까지 몰아가고있으며 엄벌을 내려야 한다

웁습니다. 죄를 범한 피고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정》에서 정말로 죄값을 치러야 할 진짜죄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겁니다. 한 인간을 불구로 만들어 그 인생전부를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은, 아니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수백만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유린했던 전범국 일본과 그의 대변자, 충실한 노복들이 지

울러 《죄인》 취급을 받고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정》을 넘볼처럼 위우는 이 땅의 《법정》의 모습입니다. 불가죄 정의를 단죄하고 사대와 매국 이 자주와 애국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진모습이란 말입니다! 언젠가 한 량심인이 러치던 분노의 절규가 생각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선 민족반역이 죄가 되지 않는가?》 그럴수 없습니다. 민족반역은 죄가 되어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민족의 쓰라린 과거를 무시하고 격멸을 모욕하는 원수들과 몸통이를 부비며 돌아치는 민족반역자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죄인으로 선고되어야 하며 피고석에는 응당 그런자들이 앉아야 할것입니다.》

《민적식이 잘한다.》, 《배우진이 잘한다.》는 환성이 장대를 진감했다. 박준표와 홍교수의 얼굴은 심시에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불이 황황 이는 눈길로 그들을 지켜보던 배우진도 보란듯이 시시작하였다. 창밖에서 아까부터 우물거린 비구름이 대줄기같은 소낙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우 리소리에 창유리마저 덜덜 떨렸다.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절규인가, 죄지는 우리들을 심판하는 하늘의 노성인가 장대비소리는 점점 더 세차게 포석을 두드리며 지음을 울렸다. 《골》



는 주장이 주저없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지어 《전과자》 나 마땅히 사죄를 받아야 하고 배상을 받아야 할 진짜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석으로 내

금 이 법정에서는 원고의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사죄를 받아야 하고 배상을 받아야 할 진짜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석으로 내